

구약개관 7과 - 사사시대 “왕이 없는 백성”
구약개관 8과 - 단일왕국시대 “왕을 가진 백성”
이종현 목사(예배기획)
enchristo9@naver.com
010.8816.9858

† 사사기

교재 p.108-121

*사사(judge)¹⁾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 사후부터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등장 때까지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이스라엘의 군사, 정치 지도자(삿 2:16-18).

‘사사’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쇼페트’나 헬라어 ‘크리테스’는 원래 ‘재판하다’, ‘다스리다’는 뜻으로서 소송과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했으나 점차 그 범위와 영향력이 정치나 군사 등으로 확대되었다(삿 2:16). 그중에서도 사사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하는 구원자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 ① 왕 : 평상시에는 재판을 하고, 전쟁에서는 전투를 지휘함
- ② 제사장 :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
- ③ 선지자 :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에게 들려줌

*사사시대의 특징 및 죄와 고통의 악순환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암흑기라 할 만큼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기였다.

- ① 강력한 영적 리더가 드물어 모두가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암흑시대요 무법 천지였다(삿 21:25).
- ② 가나안 땅 원주민들의 타락한 우상 종교와 문화에 심취하여 그들의 악습을 본받았고 특히 바알 숭배로 인한 폐해가 많았다.
- ③ 이방 족속과의 혼인으로 인해 이방인들의 타락한 생활 습속이 그대로 흡수되었다.
- ④ 유일신 여호와 신앙은 상실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없는 절망의 시간을 보냈다.
- ⑤ 자신들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이방 나라의 침략이 잦았고, 그로 인한 고통이 극에 달했다. 따라서 약 340년 간의 사사 시대 중 대략 100년 간은 외세의 침략과 압제에 시달려야 하는 비극의 시간이었다.
- ⑥ 고통당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구원자(사사)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다. 한편, 사사 시대의 이 같은 행태는 그림에서 보듯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다.

1. 내용정리

사사기로 들어가는 열쇠는 앞문과 뒷문에 모두 걸려 있다. 앞문에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게 되고(삿2:10),

1) 중국어 역본은 고대 주나라에서 형벌을 관장하던 관리를 일컫는 ‘사사’(士師)라는 용어를 본서에 사용하였는데, 개역성경의 ‘사사기’는 이를 반영한 제목이다.

(삿 2:10, 개정)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뒷문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는 말을 듣게 되기 때문이다(삿21:25).

(삿 21:25, 개정)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에서 왕들이 통치하는 군주정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의 무정부 상태와 같았다. 이 시대에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등이 ‘사사’로 불리며 활동했다.

2. 배경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삼손이 죽을 때까지 약 350년간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사사시대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삿 17:6, 개정) 그 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암흑기였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레위인, 제사장, 사사, 나실인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죄는 만연했다.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신정을 부인하고 스스로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다. 이러한 암흑의 시대였지만 이 시기 역시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시기였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의 타락에도 구약 역사 가운데 가장 긴 200년간의 평화기가 있었다.

3. 기록목적

사사기는 암흑기와 평화기의 대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을 대조적으로 보여준다. 사사기는 크게 A(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일어난 죄악)-B(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A’(왕이 없음으로 일어난 죄악)의 구조가 성립된다. 처음과 끝에 이스라엘의 죄악의 원인을 밝히고, 중간에 하나님의 신정을 통해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죄에도 불구하고 구원과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누구인지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4. 전체보기

크게 보기	사사시대의 죄 (1:1-3:6)		하나님의 신정과 사사들의 활동 (3:7-16:31)							사사시대의 범죄 (17:1-21:25)								
작게 보기	정복의 미완성 여호와를 버린 이스라엘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전반기		반역	후반기			미가 집안과 단지파의 우상 숭배	레위인의 타락과 이스라엘 내전								
			온나엘과 에후 삼갈	드보라 바락	기드온	아비 멜렉	돌라 야알 입다	입사 엘론 합돈	삼손									
	1:1 -2:10	2:11 -3:6	3:7 -3:31	4-5	6-8	9	10:1 -12:7	12:8 12:15	13-16	17-18	19-21							
핵심 주제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이스라엘의 반복된 죄와 하나님의 사랑							왕이 없음으로								
교재 구분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신정과 사랑																	
장소	가나안																	
연대	B.C. 1390 ~1383년경	B.C. 1383~1054년경							B.C. 1390 ~1383년경									

5. 자세히 보기

• 사사시대의 죄(1:1-3:6)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된다. 하나님을 아는 세대들이 다 죽었을 때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경에 처하게 되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다.

(삿 1:28, 개정)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는 여호수아 사후에 가나안 족속에 대한 정복을 포기하고 이들과 함께 살기로 결정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도적인 불순종이다. 이들은 이방민족을 몰아내기보다는 그들로부터 얻게 되는 이익, 즉 노동력과 공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들은 이제 종을 부리는 위치로 올라서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이것이 타락의 씨앗이 되었다.

• 사사시대 죄의 악순환(2:2-19) - 교재 p.110-111

‘죄 ▶ 압제를 당함 ▶ 간구 ▶ 구원 ▶ 망각 ▶ 죄’

- 죄가 악순환 되는 원인(2:2,10)

(삿 2:2, 개정)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혈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삿 2:10, 개정)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① 이스라엘의 타락

(삿 2:11, 개정)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삿 2:12, 개정)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삿 2:13, 개정)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② 하나님의 진노

(삿 2:14, 개정)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 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삿 2:15, 개정)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③ 이스라엘의 회개

(삿 2:18, 개정)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으므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④ 하나님의 구원

(삿 2:16, 개정)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삿 2:17, 개정)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⑤ 다시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타락

(삿 2:19, 개정)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 하나님의 신정과 사사들의 활동(3:7-16:31) - 참고자료 '이스라엘의 사사' 참조

사사기에 기록된 활동의 비중에 따라 대사사와 소사사로 구분하기도 한다.

대사사는 옷니엘, 예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이며, 소사사는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이 있다.

- ① 옷니엘
- ② 예훗
- ③ 드보라
- ④ 기드온
- ⑤ 입다
- ⑥ 삼손

- 나실인(Nazirite) : '구분(구별)된 자'란 뜻. 일평생 혹은 특별한 헌신을 위해 한시적으로 세상과 단절하고 스스로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한 자를 말한다. 평생 나실인으로는 사사 삼손(삿 13:5), 사사요 선지자인 사무엘(삼상 1:28), 레갑 자손(렘 35:6), 세례 요한(눅 1:15) 등이 있다. 한시적 나실인의 경우는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적용된다. 나실인은 특별히 세 가지를 금해야 했다. ① 포도나무에서 나는 소산물은 어떤 것도 먹을 수 없었고 ② 시체를 가까이할 수 없었으며 ③ 서원 기간 동안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했다(민 6:1-21).

• 사사시대의 범죄(17:1-21:25)

이스라엘의 네 계층(개정, 지파, 제사장, 백성)을 대표로 하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설명한다. 그리고 각기 네 계층의 죄의 원인을 '왕이 없으므로'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한다. 하지만 이것은 왕이 없음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셨다. 하나님의 신정이 이루어진 시기였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사건이었다. 그래서 자기의 소견대로 행동하였다. 이스라엘이 의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버린 사건이었다.

(삿 21:25, 개정)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더라

† 가나안 종교의 특징과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져든 까닭

• 가나안 종교의 특징

① 다신론 : 지역과 종족에 따라 다양한 신들을 섬겼고, 가나안과 인접해 있는 에돔, 모압, 암몬의 신까지 받아들여 우상의 수는 더욱 많아졌다.

② 형상숭배 : 대부분의 이방 종교는 형상 숭배(iconola try)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가나안 종교도 예외는 아니었다.

③ 자연 현상과의 밀접한 관련성 : 봄과 여름, 비와 가뭄, 생명과 죽음 같은 주기적인 현상이 반복되는데, 바알신화는 이러한 자연의 변화들을 신들의 활동과 연관시킨 것이다.

④ 도덕적 요구나 신과의 인격적 관계성이 없는 기복 종교 : 농업을 주된 생업으로 하고 있는 가나안인들에게 있어 변화무쌍한 자연에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불안한 일이었다. 따라서 변덕스러운 신들을 달래고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느꼈으며, 더 나아가 신들을 통제하고 이용하고자 했다.

토양의 풍요로운 결실이 바알과 아스다롯의 성적 결합에서 비롯된다고 믿었기에 그들을 자극하기 위해 신전에서 소위 신성한 매음(sacred prostitution)을 자행했다. 당연히 신과의 인격적인 관계나 거룩한 도덕적 요구란 있을 수 없다.

• 이스라엘이 가나안 우상숭배에 빠져든 원인

① 가나안의 풍요의 원인에 대한 관심 : 반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 정착해 농민이 되었다. 그들은 곡식과 가축의 다산 등 땅의 풍요로움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전에 없던 풍요를 누리게 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풍요의 배경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② 가나안의 신화적 세계관의 영향 : 가나안인들은 자연의 배후에 신들의 활동이 존재한다고 보았고 이스라엘은 이를 받아들이게 된다.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매우 신화적이었기 때문이다.

③ 종교적 혼합주의 :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등을 돌린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바알과 여호와를 함께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타 종교의 제의와 교리에 대해 수용하는 자세를 종교적 혼합주의라고 한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어떠한 경쟁자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여호와의 주권은 절대적인 것으로서 생활 전반에 걸친 것이었다.

(수 24:14, 개정)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수 24:15, 개정)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 룸기

1. 기록목적 - 시대구분 참조

①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배신하고 우상을 섬겨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진 시대에 이방 여인 룻의 믿음과 순종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② 두 번째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지 못하는 모압 여인도 하나님의 언약백성이 되고, 다윗 왕과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며,

(신 23:3, 개정)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십 대 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③ 다윗왕의 계보를 통해서 다윗의 조상 중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④ 또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 즉 기업 무를 자에 대한 개념을 통해서 온인류의 기업 무는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이다.

2. 배경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의 가정은 가나안 땅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모압 이민은 실패했다. 그러나 나오미의 신앙을 통해서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의 언약백성이 되고, 룻을 통해서 나오미의 가정과 기업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녀는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린다.

3. 전체보기

크게 보기	나오미와 룻 1:1-1:22		룻과 보아스 2:1-4:22			
작게보기	나오미 가정의 모압 이주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와 룻	룻과 보아스의 만남	나오미의 뜻에 순종하는 룻	기업 무를 자 보아스와 아무개	보아스와 룻의 결혼
	1:1-1:5	1:6-1:22	2	3	4:1-4:12	4:13-4:22
핵심 주제	우리의 기업을 무르시는 하나님					
교재구분	7과 사사시대					
장소	모압과 베들레헴					
기간	B.C 1117년경					

•“모압” 여인 룻

(신 23:3, 개정)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십 대 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신 23:4, 개정)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 보다미아의 브돌 사람 브올의 아들 발람에게 놀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예수님의 계보에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

(마 1:3, 개정)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마 1:4, 개정)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마 1:5, 개정)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마 1:6, 개정)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 제8과 단일왕국시대 ‘왕을 가진 백성’

• 사무엘상 전체보기

크게 보기	한나의 기도 응답과 감사찬양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신정			사울을 통한 하나님의 신정												
작게 보기	하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한나의 감사 찬양	엘리와 사무엘	언약궤	사무엘의 통치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	사울의 첫 번째 죄	사울의 두 번째 죄	다윗의 등장	다윗을 쫓는 사울과 블레셋으로 도피한 다윗	하나님의 심판과 블레셋의 승리								
	1	2:1-11	2:12 -3:21	4:1 -7:2	7:3 -12:25	13-14	15	16:1 -18:9	18:10 -28:2	28:3 -31:13								
핵심 주제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		왕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교재 구분	제8과 - 단일왕국시대 ‘왕을 가진 백성’																	
장소	가나안																	
기간	약 94년(B.C. 1104 – 1010년경)																	

• 사무엘하 전체보기

크게 보기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신정								다윗의 찬양과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작게 보기	이스 보셋과 다윗	언약궤	왕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과 다윗의 업적	다윗의 첫 번째 죄	다윗의 두 번째 죄	압살롬의 대두	압살롬의 반역과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는 다윗	하나님의 징계와 블레셋의 패배	다윗의 감사 찬양	다윗의 업적과 인구 조사		
	1-4	5-6	7-10	11-12	13	14-15: 6	15:7 -20:26	21	22-23: 7	23:8 -24:25		
핵심 주제	왕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			
교재 구분	8과 - 단일왕국시대 ‘왕을 가진 백성’											
장소	헤브론		예루살렘									
기간	7년 반		약 33년									

I. 사무엘

사사시대에서 왕정국가로의 전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 마지막 사사. ('사무엘상' 전체 보기 참조해주세요)

1. 사무엘의 출생과 사역 - 총체적으로 타락한 시대 마지막 사사, 선지자 시대의 개막 교재 p.124

- 사무엘의 탄생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삼상 1:20, 개정)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 한나의 기도

(삼상 2:7, 개정)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 사무엘상하에 나타나는 “상승-하강구조”를 보여준다.

- 사무엘이 태어난 시대적 배경

(삼상 2:12, 개정)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삼상 2:17, 개정)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큼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삼상 2:22, 개정)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삼상 2:23, 개정)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사무엘상 1~3장은 사사시대의 종말에 대한 기록으로서 사사기에 나타난 일반 백성들의 타락을 넘어 제사장까지도 타락해 버린 것을 기록.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죄를 중보하는 사람이기에 제사장이 타락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상실한 것.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을 통해 구원 사역을 감당하게 하심.

(삼상 3:1, 개정)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 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2.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 교재 p.126

- 시대적 배경 : 철기사회로 진입

B.C. 12세기를 전후로 후기 청동기시대에서 철기시대로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와 함께 강력한 철기 무기를 바탕으로 한 중앙집권화를 이룬 군주 국가들이 등장하게 된다. 철기 문명이 가장 앞섰던 블레셋은 강력한 철기 무기를 앞세워 가나안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은 엘리, 사무엘, 사울, 다윗에 이르는 시기까지 블레셋과 대립하게 된다.

- 왕을 필요로 했던 백성들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군주국가들의 등장과 함께 이러한 군주들과 유사한 사사들이 등장한

다.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었고, 야일은 자식들과 함께 30개 성읍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으며, 입산은 성읍 간 정략결혼을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일들이 모두 엘리와 사무엘이 활동하던 시기에 일어났으며 사울이 왕이 되기 직전의 이스라엘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사들이 등장하는 것은 그들을 지도자로 반기고 인정하는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 백성들의 입장

(삼상 8:5, 개정)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삼상 8:20, 개정)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면서 결국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찾게 되었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신정을 원치 않았고, 이방 나라와 같이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찾았다.

- 하나님의 입장

(삼상 8:7, 개정)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삼상 8:9, 개정)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 사무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왕을 고집하는 이스라엘

(삼상 8:18, 개정) 그 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 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삼상 8:19, 개정)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삼상 8:20, 개정)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II. 사울

훌륭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으로 버림받은 사람

1. ‘훈남’ ‘교회오빠’ 사울

처음에는 왕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

- 외적인 면 ‘훈남’

(삼상 9:2, 개정)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 종교적인 면 ‘교회 오빠’

(삼상 10:10, 개정)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므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그러나 이스라엘의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준수한 외모나 종교성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

사울이 가진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벼림을 받고 몰락.

(삼상 16:7, 개정)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2. 사울의 몰락

①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

(삼상 10:8, 개정)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칠 일 동안 기다리라

(삼상 13:8, 개정)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례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흘어지는지라

(삼상 13:9, 개정)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7일을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신뢰하지 못하고 제사장 사무엘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제사를 드림

② 자의적인 신앙

(출 17:14, 개정)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삼상 15:3, 개정)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삼상 15:9, 개정)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삼상 15:21, 개정)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 왔나이다 하는지라

(삼상 15:22, 개정)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솟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내 기준에서 옳은 일보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반면 다윗은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능멸하자 하나님과 함께 분노했다.

③ 질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섭리에 반항

(삼상 18:29, 개정)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삼상 26:11, 개정)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하나님 존중”

(삼상 2:30) ... 나를 존중하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하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④ 형식적 신앙

(삼상 28:5, 개정)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삼상 28:6, 개정)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삼상 28:7, 개정)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례 20:6, 개정)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

결국 사울은 길보아산에서 블레셋 군대에게 패하였고, 스스로 자결함.

III. 다윗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부분과 정치적인 부분에서 가장 균형 잡힌 왕

1. 하카톤(작은, 어린, 하찮은, 무가치한),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삼상 16:7, 개정)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나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삼상 16:11, 개정)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하카톤)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행 13:22, 개정)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 다윗의 장점

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 나오는 아름다운 성품

(삼하 1:14, 개정)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삼하 1:17, 개정)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삼하 1:27, 개정)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의 가정이 몰락하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슬퍼하고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죽도록 방관한 아말렉 사람을 처형했다. 이는 다윗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삼상 2:6, 개정)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삼상 2:7, 개정)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 한나의 노래 -

②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와 자세

(삼하 5:3, 개정)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삼하 6:2, 개정)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삼하 6:16, 개정)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은 왕이 된 후 예루살렘을 정치, 종교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사울은 언약궤에 무심했던 반면, 다윗은 가장 먼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졌고,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가져옴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자로서, 언약(십계명)의 두 돌비를 보관했다는 점에서 언약궤라 불렸다 (출 25:21-22). 언약궤는 조각목(아카시아나무)으로 만들어졌으며(출 25:10), 길이는 두 규빗 반(약 114cm), 높이와 너비는 각각 한 규빗 반(약 68cm)으로 된 장방형의 상자로, 그 위에 순금판을 덧씌웠으며, 상단에는 테를 옆면에는 운반용 막대를 낀 수 있는 고리를 부착했다. 궤의 뚜껑으로 쓰는 순금판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은혜의 장소인 ‘속죄소’(시은좌)라 불리웠고(출 30:6; 민 7:89), 그 양쪽 끝에는 금으로 만든 그룹(날개를 가진 천사 모양의 조각상)이 서로 대하여 있도록 만들어졌다(출 25:10-22).

언약궤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기까지 고핫 자손이 어깨로 운반했으며(민 4:15; 신 31:25), 특별한 경우 제사장들이 옮겼다(수 3:3; 6:6).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광야 여행(민 10:33)에서나 요단 강을 건널 때(수 3:1-17), 여리고 전쟁 때(수 6:4, 8)에 앞세워져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드러냈다.

*언약궤의 이동 경로

법궤(언약궤)는 맨 처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모세의 주관 하에 시내산에서 만들어졌다. 이후 광야 40여 년의 유랑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정복 전쟁을 치르는 동안 이스라엘의 본영인 ‘길갈’에 안치되었다. 7년여에 걸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그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할 시기에 법궤는 ‘실로’로 옮겨졌다.²⁾ 이후 법궤는 사사시대 말엽인 엘리시대까지 300년 이상 실로의 회막에 안치되어 있었다. 그러던 중 법궤를 전쟁터에 가져갔다가 블레셋에게 빼앗겨 7개월 동안 블레셋 땅을 전전했다. 결국 법궤를 감당하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 보냈는데, 돌려보내진 법궤는 처음 ‘벤세메스’를 거쳐 ‘기럇여아림’ 땅의 아비나답의 집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다. 그로부터 70여 년이 흐른 후,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윗왕은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가기를 원했다. 하지만 1차 운반의 실패(아래 에피소드 참조)로 가드사람 오벨에돔의 집에 잠시 두었고, 3개월 후 2차로 시도하여 마침내 법궤를 ‘다윗 성’으로 운반해 들였다.

*언약궤와 관련된 에피소드 두 가지

2) (수 18:1, 개정)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삼상 4:3, 개정)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삼하 6:6, 개정)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삼하 6:7, 개정)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 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언약궤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부적이 아니며,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는 성물임을 알려주는 일화.

③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 - 다윗언약

(삼하 7:1, 개정)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삼하 7:2, 개정)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대상 22:7, 개정)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대상 22:8, 개정)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 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신 12:10, 개정)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양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신 12:11, 개정)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 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성막에 있는 것을 민망히 여겨 성전건축을 제안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전쟁에서 피를 많은 흘린 까닭에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다. 후에 다윗왕의 아들인 솔로몬(이름의 뜻 : 평안)의 시대에 성전 짓기를 허락하신다.

*다윗언약(삼하 7장)

-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음(8절)
-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심으로 모든 대적을 멸하셔서 이름을 존귀하게 하심(9절)
- 이스라엘 백성이 유랑하지 않고 정착하게 하심(10절)
- 이스라엘을 평안케 하심(11절)
- 왕가를 세우게 하심(11-12절)

④ 다윗의 선행(삼하 9장)

(삼하 9:10, 개정)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므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열다섯 명이요 종이 스무 명이라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보셋(두 발에 장애가 있음)을 거두어 왕궁에서 살게 하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도록 극진히 대우하였다.

2. 다윗의 범죄(삼하 11장)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전10:12)”- **교재 p.131**

- 밧세바와의 간음

(삼하 11:2, 개정)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 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삼하 11:4, 개정)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은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4개의 계명을 범했다.

제6계명(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간음하지 말라), 제9계명(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계명(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3.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You are the man!)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 비유를 통해 다윗의 죄를 드러내자 다윗은 변명하지 않고 회개하여 용서를 받았다. 죄는 용서를 받았지만 죄의 흔적은 그대로 남아 다윗의 인생에 큰 어려움을 안겨주었다.

- 심판의 예언

(삼하 12:10, 개정)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①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삼하 12:11, 개정)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②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삼하 12:12, 개정)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삼하 12:13, 개정)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삼하 12:14, 개정)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③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 다윗이 받은 심판

- ①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음
- ② 딸 다말을 암논이 범함
- ③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장남 암논을 죽이고 왕위를 탐냄
- ④ 압살롬이 왕위를 노리고 반란을 일으킴
- ⑤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을 백주에 범함
- ⑥ 압살롬과 다윗의 전쟁으로 압살롬이 죽음
- ⑦ 베냐민 사람 세바가 반역함으로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돌아섬
- ⑧ 넷째 아들 아도니야의 반역

- 징벌을 받는 다윗의 태도 : 전적인 순종

① 암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도망가는 중 언약궤에 대한 태도

(삼하 15:24, 개정)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 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떼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삼하 15:25, 개정)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떼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시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언약궤를 가져간다는 것은 자신의 정통성과 함께 이스라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었으나 여호와의 존귀함을 침해하지 않았다. 이는 엘리 제사장 시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자 언약궤를 승리의 부적으로 이용했던 것과 대조된다.

② 시므이의 저주 앞에서

(삼하 16:8, 개정)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암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삼하 16:11, 개정)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③ 참회의 시편을 기록함 - 시편 51편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의 소재가 됨.

(시 51:10, 개정) 하나님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 51:11, 개정)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께서 거두지 마소서

† 사무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에서 왕정 체제가 어떻게 시작되며, 어떻게 왕정이 이루어져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다. 하나님이 왕이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이외의 다른 임금이 등장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형식의 왕정은 일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적 요구에 의해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본다면 이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 하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 의해 왕이 세워지고 왕정 체제가 시작되었지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왕정은 인간 중심의 왕정 체제와는 그 성격이 사뭇 다른 신정적(神政的) 왕정 체제라 말할 수 있다.